

도서관의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이 피교육자의 학술정보 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 상명대학교 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Types of Library Instruction in Improving the Information Literacy of Users: Focus on the Sangmyung University Library

노동조(Dong-Jo Noh)*, 민숙희(Sook-Hee Min)**

〈 목 차 〉

I. 서론	VI. 피교육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학술정보 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와의 관계 분석
II. 선행연구	VII.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과 피교육자의 학술정보 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와의 관계 분석
III. 상명대학교 도서관의 학술정보 이용교육	VIII. 결론 및 제언
IV. 연구방법	
V. 조사대상자의 특성 분석	

초 록

본 연구는 상명대학교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술정보 이용교육의 실태를 밝히고, 나아가 보다 합리적인 학술정보 이용교육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피교육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제공받은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라 이들의 학술정보 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총 112부의 응답지를 SAS를 통하여 통계처리하고,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통하여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피교육자들의 학술정보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학술잡지시스템, 관련 사이트, 학위논문, 전자자료, 원문복사서비스, 전자자료 외부이용, e-book, 번역서비스의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둘째,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 중에는 그룹별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며, 반대로 온라인 교육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장 합리적인 학술정보 이용교육 방안은 학부의 고학년 및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형태의 그룹별 교육이었다.

주제어: 학술정보, 이용교육, 교육방법, 대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 인지도, 사례연구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in preparation for a library instruction program for the Sangmyung University Libr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types of library instruction in improving the information literacy of users. 112 questionnaires were measured and analyzed using SAS and t-test, ANOVA among other statistical techniqu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Library instruction directly affects the information literacy of users. After taking library instruction, users were able to effectively use the AtoZ service, related Sites service, thesis service, E-resources, DDS service, off-campus service, translation system and the e-book service through the library homepage. (2) Group instruction proved to be the most effective type of library instruction while online instruction was the worst.

Key Words: Library Instruction, Type Of Library Instruction, Academic Library, Library Information Service, Information Literacy, Case Study

* 상명대학교 사회과학부 문헌정보학전공 조교수(djnoh@smu.ac.kr) (제1저자)

** 상명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과 주임(solvang@smu.ac.kr) (공동저자)

• 접수일: 2006년 5월 31일 • 최종심사일: 2006년 6월 9일 • 최종심사일: 2006년 6월 22일

I. 서론

대학도서관의 기능은 대학의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데 있다. 과거의 대학도서관은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정보의 이용 및 활용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최근의 대학도서관들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로의 접근 및 자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교육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대학도서관은 변화된 디지털 정보환경에 따라 전자 자료를 위시한 다양한 학술정보원의 수집에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있다. 따라서 학술정보원에 대한 비용 대 효과적 측면을 고려한 자료 활용의 향상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그러한 해결책 중의 하나로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학술정보 이용교육법이 강력히 제시되고 있다.

학술정보 이용교육은 학술정보원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을 향상 시켜서 궁극적으로 이용자가 사서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술정보 이용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보다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학술정보 이용교육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명대학교 도서관의 사례를 통하여 대학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술정보 이용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이용자의 만족도 및 인지도를 조사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술정보 이용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국내의 연구

학술정보 이용교육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주로 교육적 측면에서 학술정보 이용교육의 당위성을 강조한 연구와 학술정보 이용교육 후의 효과에 관한 연구로 양분된다.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창수와 김신영¹⁾은 도서관의 학술정보 이용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대학구성원(행정당국, 교수, 사서)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러한 협력을 통하여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경미²⁾도 이용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수와 사서간의 협력을

1) 이창수, 김신영, "정보이용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대학구성원간 협력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Vol.20, No.1(2003), pp.245-247.

2) 김경미, 2002,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활성화 방안," 사대도협회지, 3(2002), pp.98-99.

통해서 만이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전문사서의 적극적인 태도가 학술정보 이용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였다. 남태우와 정재영³⁾은 정보이용교육의 활성화 전략으로 다양한 홍보방법의 도입, 효과적인 교수법의 개발, 주제사서와 해당분야 교수간의 협력관계 구축, 맞춤형 교육의 제공, 학과수업과의 연계, 학점인증제의 도입을 들고 있다. 장덕현⁴⁾은 도서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용(Content)이며, 외형적 변화보다는 기본(Fundamentals)을 고려한 내실 있는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도서관 이용교육을 통해서 사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학술정보 이용교육과 정보활용능력 간의 유기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학술정보 이용교육의 필요성을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효과 검증을 통하여 강조하려는 연구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유재욱⁵⁾은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이 이용자의 학술정보 이용능력 특히, 원문검색과 색인검색과 같은 고급학술정보 이용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밝혔다. 오의경⁶⁾은 낮은 도서관 이용교육 노출, 정보원 경험, 교수진의 조언이 이용자의 정보리터러시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면서, 보다 실질적인 도서관 정보활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민지은⁷⁾은 이용자 요구분석을 통하여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용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를 제시하였다. 김태경⁸⁾은 이용자의 정보활용능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제와 전공에 따른 특화된 도서관 이용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외국의 연구

학술정보 이용교육에 관한 외국의 연구는 서지교육(Bibliographic Instruction)에서부터 웹 기반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Mercado⁹⁾처럼 정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교육방식인 서지교육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등장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학술정보 이용교육은 다양한 정보환경에 맞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요구하며, 그 중요성도 더욱 부각하고 있다.

-
- 3) 남태우, 정재영, “정보이용교육 활성화 전략,”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0(2003), pp.45-52.
 - 4) 장덕현, “대학도서관 이용교육 연구의 동향과 논점,” 한국도서관학회지, 제33권, 제1호(2002), pp.15-17.
 - 5) 유재욱, “대학도서관 이용자 교육이 이용자의 학술정보 이용능력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블리아, Vol.15, No.1(2004), pp.257-258.
 - 6) 오의경, 학생의 정보리터러시에 영향을 주는 미치는 요인분석(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6), pp.86-89.
 - 7) 민지은, 대학도서관의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용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2), pp.85-86.
 - 8) 김태경, “특정주제중심의 도서관 이용자교육,” 한국비블리아, Vol.12(2005), pp.61-63.
 - 9) Heidi Mercado, “Library instruction and online database searching,” *Reference Service Review*, Vol.27, No.3(1999), p.264.

Farber¹⁰⁾는 학술정보 이용교육을 위해서 교수와 사서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학과연계프로그램(Course Integrated Program)이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즉, 학술정보 이용교육을 통하여 수강학생들에게 관련과목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정보 활용능력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Sanborn¹¹⁾은 St. Paul's School Library의 학술정보 이용 교육 사례를 소개하면서, 교수와의 협력방식이 도서관 학술정보 이용교육의 가치상승 및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주장하였다. Nims¹²⁾는 도서관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중 PR은 사서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를 바람직하게 하며,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시장조사를 통한 이용자 요구를 끊임없이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Ⅲ. 상명대학교 도서관의 학술정보 이용교육

2006년 4월 현재까지 상명대학교 도서관에서 실시한 학술정보 이용교육 현황은 <표 1>, <표 2>와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명대학교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방법은 학과 요청에 의한 학과연계 수시교육과 도서관 주관의 정규교육, 그리고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수시로 제공하는 소규모 그룹교육, 일대일 교육이 있으며 또 이와는 별도로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교육 시기는 개강 후 2주부터 시작하여 학기말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회수는 정규 수업인 경우에는 주 1회, 수시 수업인 경우에는 개인별/그룹별/학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홍보는 도서관 홈페이지 및 학내 관련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방법 외에도 이용자별로 세분하여 단문 문자서비스(SMS)를 발송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방식의 공고문을 학내 건물마다 부착하고 있었다. 교육 자료는 2쪽 분량의 인쇄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 자료의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다양한 학술정보원을 자료의 형태별(단행본/학회지/학위논문)로 구분하여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다. 교육장소는 별도의 교육장소 없이 도서관내의 정보검색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은 교육담당 사서 1명이 담당하고 있었다. 교육시간은 2시간 내외이며, 교육에 앞서 교육 희망자들의 정보활용능력 수준을 평가한 다음,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 후에는 교육내용과 관련된 5문항의 문제를 제시하여 교육에 대한 피교육자의 반응도 평가하고 있었다.

10) Evan Farber, "Faculty-librarian cooperation : a personal retrospective," *Reference Service Review*, Vol.27, No.3(1999), p.231.

11) L. Sanborn, "Improving library instruction: Faculty collaboration,"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Vol.31, No.5(2005), pp.479-480.

12) Julia K. Nims, "Marketing library instruction services: changes and trends," *Reference Services Review*, Vol.27, No.3(1999), pp.251-252.

〈표 1〉 상명대학교 도서관의 학술정보 이용교육 현황

항 목	내 용
교육 방법	학과 및 교수 요청에 의한 학과별 수시교육 도서관 주관의 정규교육 및 소규모 그룹교육 일대일 교육 온라인 교육
교육 내용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자료검색 전반적인 국내의 전자저널 검색 및 원문 다운로드 방법 관련 사이트(KERIS, 국회도서관) 검색, 원문복사 서비스 이용
교재 사용	수업관련 인쇄물 - 2쪽 분량
교육 시기	매주 일정시기 개별요청에 따라 수시로 기타
교육 시간	1시간 ~ 2시간
교육 홍보	도서관 및 관련 홈페이지 SMS(이용자별) 발송 오프라인 공고문 부착
교육 평가	교육 후 교육내용과 관련된 5문항의 퀴즈 실시 예: 1) 한국가족복지학 v.8에 실린 김수정, 전신영이 발표한 논문(기사)제목은? 2)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2005년도 수여된 박사학위논문 중 Families & family life 부분의 논문2편만 고르시오(제목, 저자)
교육 담당자	교육담당 사서 1명
교육 시설	별도 공간 없음(정보검색실 공동 이용)

상명대학교 도서관에서 실시했던 도서관의 학술정보 이용교육 실시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에는 도서관 주관의 그룹별 또는 일대일 교육이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6년부터는 학과요청에 의한 수시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상명대학교 도서관의 학술정보 이용교육 실시 현황

교육방법	연 도	2005년		2006년	
		횟수(회)	인원(명)	횟수(회)	인원(명)
학과요청에 의한 학과별 수시교육		0	0	9	115
도서관 주관의 정규 교육 및 소규모 그룹교육		21	97	8	31
일대일 교육		10	10	2	2
온라인 교육		0	0	957	957
합 계		31	107	976	1105

(2005년: 2005.3.1~2006.2.28, 2006년: 2006.3.12~2006.4.14 기준임)

IV. 연구방법

1. 변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은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피교육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이들이 도서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이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다시 피교육자의 성별과 전공의 세부 요인으로 나누어지며,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은 다시 도서관 안내책자·리플렛 교육, 그룹별 교육, 학과별 교육, 일대일 교육, 온라인 교육의 세부 요인으로 구분된다. 종속변인은 피교육자의 학술정보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이다. 학술정보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는 다시 온라인목록검색(OPAC), 외국잡지시스템(AtoZ), SDI 서비스, 관련 사이트(국회도서관, KERIS, NDSL), 학위논문, 전자자료(학술DB, 전자저널), 원문복사서비스, 전자자료(학술DB, 전자저널)의 외부이용, E-book, 번역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의 세부 요인으로 구분된다.

<표 3> 변인

변인		세부요인	
독립변인	피교육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성별	남 녀
		전공	사회과학부 경영학부 행정학과 사범대학 자연과학부 생활환경학부
	학술정보 이용교육 방법		도서관 안내책자·리플렛교육 그룹별 교육 학과별 교육 일대일 교육 온라인 교육
종속변인	학술정보 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온라인 목록검색(OPAC) 외국학술잡지시스템(AtoZ) SDI서비스 관련사이트(KERIS, 국회도서관, NDSL) 학위논문 전자자료(학술DB, 전자저널) 원문복사서비스 전자자료(학술DB, 전자저널)의 외부이용 e-book 번역서비스

2. 가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 피교육자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이들의 학술정보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라 피교육자들의 학술정보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질문지에 대한 응답 형식으로 얻어졌다. 질문지는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용자의 개인적 배경에 관한 질문(4문항)과 학술정보 이용교육 이수 현황에 관한 질문(15문항), 학술정보 이용교육 후의 평가에 관한 질문(12문항), 학술정보 이용교육 후의 효과에 관한 질문(1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2006년 4월10일까지 상명대학교 도서관에서 실시했던 2006년도 상반기 학술정보 이용교육을 이수한 148명 전원과 이와는 별도로 온라인 이용교육을 이수한 957명 가운데 무작위로 20명을 선정하여, 총 168명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에서 112부(66.7%)의 응답지가 회수되어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기간은 2006년 3월12일부터 4월14일까지 총 34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질문지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SAS(Strategy Application System)를 통해 통계처리 하였으며, 변인간의 관계 검정을 위해서 표본 집단간의 평균 차이로서 유의도를 검정하는 t-test와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사용하였다.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V. 조사대상자의 특성 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된 112명의 성별, 전공별, 학년별,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별 분포는 <표 4>와 같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성별, 전공별, 학년별,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별 분포

조사 대상자		조사대상자 수(%)
성	남자	26(23.2)
	여자	86(76.8)
	합계	112(100.0)
전공	사회과학부	32(28.6)
	경영학부	6(5.3)
	행정학과	20(17.9)
	사범대학	20(17.9)
	자연과학부	10(8.9)
	생활환경학부	11(9.8)
	기타	13(11.6)
	합계	112(100.0)
학년	1학년	40(35.7)
	2학년	36(32.1)
	3학년	18(16.1)
	4학년	8(7.1)
	대학원	7(6.3)
	기타	3(2.7)
	합계	112(100.0)
학술정보이용교육방법	도서관안내책자·리플렛교육	8(7.2)
	그룹별 교육	23(20.5)
	학과별 교육	55(49.1)
	일대일 교육	9(8.0)
	온라인 교육	17(15.2)
	합계	112(100.0)

VI. 피교육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학술정보서비스 이용법에 대한인지도와의 관계 분석

1. 피교육자의 성별에 따른 인지도 차이 분석

피교육자의 성별에 따른 학술정보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는 전자자료 이용법(3.81), 관련사이트 이용법(3.77), 온라인목록 검색 이용법(3.7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는 온라인목록검색 이용법(3.72), 관련사이트 이용법(3.64)의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피교육자의 성별에 따른 학술정보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t-test를 통하여 검정한 결과, 0.008의 유의도를 나타낸 원문복사서비스 이용법만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고, 나머지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5〉 성별에 따른 학술정보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학술정보 서비스 이용법	남자(n=26) M(SD)	여자(n=86) M(SD)	T값(P값)
온라인목록검색	3.76(0.91)	3.72(0.77)	0.29(.252)
외국학술잡지(AtoZ)	3.23(1.11)	3.32(0.89)	-0.41(.144)
SDI서비스	3.00(1.06)	2.89(0.88)	0.52(.213)
관련사이트	3.77(1.07)	3.64(0.87)	0.63(.158)
학위논문	3.54(1.14)	3.55(0.86)	-0.04(.063)
전자자료	3.81(0.90)	3.59(0.90)	1.07(1.00)
원문복사서비스	3.38(1.30)	3.49(0.88)	-0.38(.008)*
전자자료 외부이용	3.38(1.17)	3.53(0.89)	-0.70(068)
e-book	3.31(1.05)	3.37(0.96)	-0.30(.534)
번역서비스	3.15(1.32)	3.24(1.28)	-0.30(.828)

2. 피교육자의 전공에 따른 인지도 차이 분석

가. 온라인목록검색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피교육자의 전공에 따른 온라인목록검색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환경학부(4.0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사회과학부(3.81)였다. 피교육자의 전공에 따른 온라인목록검색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ANOVA를 통하여 검정한 결과, 0.833의 유의도를 나타내어, 피교육자의 전공과 온라인목록검색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간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6〉 전공에 따른 온라인목록검색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피교육자의 전공	온라인목록검색 M(SD)	F값
사회과학부	3.81(0.69)	0.42
경영학부	3.50(0.55)	
행정학과	3.68(1.06)	
사범대학	3.70(0.73)	
자연과학부	3.70(0.95)	
생활환경학부	4.00(0.63)	

*p=0.833

나. 외국학술잡지시스템(AtoZ)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피교육자의 전공에 따른 외국학술잡지시스템(AtoZ)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환경학부(3.55)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사회과학부(3.50)와 자연과학부(3.50)였다. 피교육자의 전공에 따른 외국학술잡지시스템(AtoZ)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ANOVA를 통하여 검정한 결과, 0.409의 유의도를 나타내어, 피교육자의 전공과 외국학술잡지시스템(AtoZ)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간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7〉 전공에 따른 외국학술잡지시스템(AtoZ)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피교육자의 전공	외국학술잡지시스템(AtoZ) M(SD)	F값
사회과학부	3.50(0.88)	1.02
경영학부	2.83(1.17)	
행정학과	3.11(0.99)	
사범대학	3.20(0.83)	
자연과학부	3.50(1.08)	
생활환경학부	3.55(0.93)	

*p=0.409

다. SDI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피교육자의 전공에 따른 SDI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과학부(3.3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사회과학부(3.06)와 생활환경학부(3.00)의 순이었다. 피교육자의 전공에 따른 SDI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ANOVA를 통하여 검정한 결과, 0.465의 유의도를 나타내어, 피교육자의 전공과 SDI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간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8〉 전공에 따른 SDI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피교육자의 전공	SDI서비스 M(SD)	F값
사회과학부	3.06(0.98)	0.93
경영학부	2.33(0.82)	
행정학과	2.84(1.01)	
사범대학	2.95(0.78)	
자연과학부	3.30(1.16)	
생활환경학부	3.00(0.77)	

*p=0.465

라. 관련 사이트(KERIS, 국회도서관, NDSL)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피교육자의 전공에 따른 관련사이트(KERIS, 국회도서관, NDSL)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

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학과(4.0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생활환경학부(3.82)와 사범대학(3.75)의 순이었다. 피교육자의 전공에 따른 관련사이트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ANOVA를 통하여 검정한 결과, 0.033의 유의도를 나타내어, 피교육자의 전공과 관련사이트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간에는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9> 전공에 따른 관련사이트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피교육자의 전공	관련사이트 M(SD)	F값
사회과학부	3.69(0.74)	2.54
경영학부	2.67(1.21)	
행정학과	4.00(0.92)	
사범대학	3.75(0.72)	
자연과학부	3.40(1.07)	
생활환경학부	3.82(0.87)	

*p=0.033

마. 학위논문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피교육자의 전공에 따른 학위논문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학과(3.85)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사범대학(3.65)과 자연과학부(3.60)의 순이었다. 피교육자의 전공에 따른 학위논문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ANOVA를 통하여 검정한 결과, 0.019의 유의도를 나타내어, 피교육자의 전공과 학위논문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간에는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10> 전공에 따른 학위논문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피교육자의 전공	학위논문 M(SD)	F값	Scheffe's test
사회과학부 a	3.53(0.84)	2.84	cdefa/defab
경영학부 b	2.33(0.82)		
행정학과 c	3.85(0.93)		
사범대학 d	3.65(0.93)		
자연과학부 e	3.60(0.70)		
생활환경학부 f	3.55(0.93)		

*p=0.019

바. 전자자료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피교육자의 전공에 따른 전자자료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학과(4.05)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자연과학부(3.70)와 경영학부(3.67)의 순이었다. 피교육자의 전공에 따른 전자자료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ANOVA를 통하여 검정한 결과, 0.302의 유의도를 나타내어, 피교육자의 전공과 전자자료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간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11〉 전공에 따른 전자자료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피교육자의 전공	전자자료 M(SD)	F값
사회과학부	3.47(0.88)	1.23
경영학부	3.67(0.52)	
행정학과	4.05(0.69)	
사범대학	3.60(1.10)	
자연과학부	3.70(0.82)	
생활환경학부	3.45(0.93)	

*p=0.302

사. 원문복사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피교육자의 전공에 따른 원문복사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학과(4.0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자연과학부(3.70)와 사회과학부(3.47)의 순이었다. 피교육자의 전공에 따른 학위논문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ANOVA를 통하여 검정한 결과, 0.000의 유의도를 나타내어, 피교육자의 전공과 원문복사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간에는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12〉 전공에 따른 원문복사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피교육자의 전공	원문복사 서비스 M(SD)	F값	Scheffe's test
사회과학부 a	3.47(0.92)	4.89	ceadf/dfb
경영학부 b	2.00(0.63)		
행정학과 c	4.00(0.65)		
사범대학 d	3.40(1.10)		
자연과학부 e	3.70(0.95)		
생활환경학부 f	3.18(0.98)		

*p=0.000

아. 전자자료 외부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피교육자의 전공에 따른 전자자료 외부이용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학과(4.0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자연과학부(3.70)와 경영학부(3.67)의 순이었다. 피교육자의 전공에 따른 전자자료 외부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ANOVA를 통하여 검정한 결과, 0.153의 유의도를 나타내어, 피교육자의 전공과 전자자료 외부이용법에 대한 인지도간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13〉 전공에 따른 전자자료 외부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피교육자의 전공	전자자료 외부이용 M(SD)	F값
사회과학부	3.47(0.88)	1.65
경영학부	2.67(1.21)	
행정학과	3.85(0.75)	
사범대학	3.40(1.14)	
자연과학부	3.70(0.82)	
생활환경학부	3.55(0.93)	

*p=0.153

자. e-book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피교육자의 전공에 따른 e-book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환경학부(3.73)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행정학과(3.70)와 사회과학부(3.48)의 순이었다. 피교육자의 전공에 따른 e-book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ANOVA를 통하여 검정한 결과, 0.025의 유의도를 나타내어, 피교육자의 전공과 e-book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간에는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14〉 전공에 따른 e-book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피교육자의 전공	e-book M(SD)	F값
사회과학부	3.48(0.93)	2.71
경영학부	2.33(0.82)	
행정학과	3.70(0.86)	
사범대학	3.20(0.89)	
자연과학부	3.10(1.10)	
생활환경학부	3.73(0.01)	

*p=0.025

차. 번역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피교육자의 전공에 따른 번역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과학부(4.0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사회과학부(3.71)와 사범대학(3.10)의 순이었다. 피교육자의 전공에 따른 번역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ANOVA를 통하여 검정한 결과, 0.005의 유의도를 나타내어, 피교육자의 전공과 번역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간에는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15〉 전공에 따른 번역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피교육자의 전공	번역서비스 M(SD)	F값
사회과학부	3.71(1.22)	3.60
경영학부	2.33(1.03)	
행정학과	2.55(1.15)	
사범대학	3.10(1.21)	
자연과학부	4.00(0.94)	
생활환경학부	3.09(1.76)	

*p=0.005

VII.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과 피교육자의 학술정보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와의 관계 분석

가. 온라인목록검색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피교육자의 온라인목록검색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별 교육(4.0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학과별 교육(3.70)과 도서관 안내책자·리플렛 교육(3.63)의 순이었다.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피교육자의 온라인목록검색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ANOVA를 통하여 검정한 결과, 0.438의 유의도를 나타내어,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과 피교육자의 온라인목록검색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간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16〉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온라인목록검색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	온라인목록검색 M(SD)	F값
도서관안내책자·리플렛 교육	3.63(0.52)	0.95
그룹별 교육	4.00(0.67)	
학과별 교육	3.70(0.84)	
일대일 교육	3.56(0.73)	
온라인교육	3.59(0.94)	

*p=0.438

나. 외국학술잡지시스템(AtoZ)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피교육자의 외국학술잡지시스템(AtoZ)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별 교육(3.7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도서관 안내책자·리플렛 교육(3.63)과 일대일 교육(3.56)의 순이었다. 반면에 온라인 교육은 2.35의 인지도를 나타내어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피교육자의 외국학술잡지시스템(AtoZ)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ANOVA를 통하여 검정한 결과, 0.000의 유의도를 나타내어,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과 피교육자의 외국학술잡지시스템(AtoZ)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간에는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17>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외국학술잡지시스템(AtoZ)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	외국학술잡지시스템(AtoZ) M(SD)	F값	Scheffe's test
도서관안내책자·리플렛 교육 a	3.63(0.74)	7.77	badc/e
그룹별 교육 b	3.78(0.80)		
학과별 교육 c	3.30(0.90)		
일대일 교육 d	3.56(0.73)		
온라인교육 e	2.35(0.79)		

*p=0.000

다. SDI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피교육자의 SDI 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관 안내책자·리플렛 교육(3.2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일대일 교육(3.00)과 학과별 교육(2.98)의 순이었다. 반면에 온라인 교육은 2.59의 인지도를 나타내어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피교육자의 SDI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ANOVA를 통하여 검정한 결과, 0.467의 유의도를 나타내어,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과 피교육자의 SDI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간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18>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SDI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	SDI서비스 M(SD)	F값
도서관안내책자·리플렛 교육	3.25(0.89)	0.90
그룹별 교육	2.87(1.01)	
학과별 교육	2.98(0.93)	
일대일 교육	3.00(0.87)	
온라인교육	2.59(0.80)	

*p=0.467

라. 관련 사이트(KERIS, 국회도서관, NDSL)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피교육자의 관련 사이트(KERIS, 국회도서관, NDSL)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별 교육(3.9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학과별 교육(3.84)과 일대일 교육(3.78)의 순이었다. 반면에 온라인 교육은 2.82의 인지도를 나타내어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피교육자의 관련 사이트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ANOVA를 통하여 검정한 결과, 0.000의 유의도를 나타내어,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과 피교육자의 관련 사이트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간에는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19>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관련 사이트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	관련사이트 M(SD)	F값	Scheffe's test
도서관안내책자·리플렛 교육 a	3.50(0.93)	5.32	bcda/dae
그룹별 교육 b	3.91(0.79)		
학과별 교육 c	3.84(0.81)		
일대일 교육 d	3.78(0.83)		
온라인교육 e	2.82(1.01)		

*p=0.000

마. 학위논문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피교육자의 학위논문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별 교육(3.8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일대일 교육(3.78)과 학과별 교육(3.71)의 순이었다. 반면에 온라인 교육은 2.47의 의 인지도를 나타내어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피교육자의 학위논문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ANOVA를 통하여 검정한 결과, 0.000의 유의도를 나타내어,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과 피교육자의 학위논문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간에는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20>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학위논문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	학위논문 M(SD)	F값	Scheffe's test
도서관안내책자·리플렛 교육 a	3.50(0.53)	8.96	bdca/ae
그룹별 교육 b	3.87(0.81)		
학과별 교육 c	3.71(0.83)		
일대일 교육 d	3.78(0.83)		
온라인교육 e	2.47(0.87)		

*p=0.000

바. 전자자료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피교육자의 전자자료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별 교육(4.1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학과별 교육(3.82)과 일대일 교육(3.67)의 순이었다. 반면에 온라인 교육은 2.65의 인지도를 나타내어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피교육자의 전자자료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ANOVA를 통하여 검정한 결과, 0.000의 유의도를 나타내어,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과 피교육자의 전자자료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간에는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21>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전자자료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	전자자료 M(SD)	F값	Scheffe's test
도서관안내책자·리플렛 교육 a	3.13(0.83)	11.01	bcd/ae
그룹별 교육 b	4.13(0.69)		
학과별 교육 c	3.82(0.77)		
일대일 교육 d	3.67(0.71)		
온라인교육 e	2.65(0.86)		

*p=0.000

사. 원문복사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피교육자의 원문복사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별 교육(3.8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학과별 교육(3.64)과 일대일 교육(3.56)의 순이었다. 반면에 온라인 교육은 2.41의 인지도를 나타내어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피교육자의 원문복사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ANOVA를 통하여 검정한 결과, 0.000의 유의도를 나타내어,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과 피교육자의 원문복사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간에는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22>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원문복사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	원문복사 서비스 M(SD)	F값	Scheffe's test
도서관안내책자·리플렛 교육 a	3.25(1.04)	7.94	bcda/ae
그룹별 교육 b	3.87(0.87)		
학과별 교육 c	3.64(0.82)		
일대일 교육 d	3.56(0.53)		
온라인교육 e	2.41(1.12)		

*p=0.000

아. 전자자료 외부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피교육자의 전자자료 외부이용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별 교육(3.8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도서관 안내책자·리플렛 교육(3.75)과 학과별 교육(3.64), 일대일 교육(3.56)의 순이었다. 반면에 온라인 교육은 2.41의 인지도를 나타내어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피교육자의 전자자료 외부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ANOVA를 통하여 검정한 결과, 0.000의 유의도를 나타내어,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과 피교육자의 전자자료 외부이용법에 대한 인지도간에는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23>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전자자료 외부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	전자자료 외부이용 M(SD)	F값	Scheffe's test
도서관안내책자·리플렛 교육 a	3.75(0.71)	8.60	bacd/e
그룹별 교육 b	3.87(0.92)		
학과별 교육 c	3.64(0.87)		
일대일 교육 d	3.56(0.73)		
온라인교육 e	2.41(0.80)		

*p=0.000

자. e-book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피교육자의 e-book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4>와 같다.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대일 교육(3.5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학과별 교육(3.54)과 그룹별 교육(3.39)의 순이었다. 반면에 온라인 교육은 2.67의 인지도를 나타내어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피교육자의 e-bppk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ANOVA를 통하여 검정한 결과, 0.034의 유의도를 나타내어,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과 피교육자의 e-book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간에는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24>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e-book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	e-book M(SD)	F값	Scheffe's test
도서관안내책자·리플렛 교육 a	3.13(0.83)	2.71	cbda/dbae
그룹별 교육 b	3.39(1.03)		
학과별 교육 c	3.54(0.99)		
일대일 교육 d	3.56(0.73)		
온라인교육 e	2.67(0.82)		

*p=0.034

차. 번역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피교육자의 번역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대일 교육(4.0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그룹별 교육(3.83)의 순이었다. 이 외에 온라인 교육(2.13), 도서관 안내책자·리플렛 교육(3.00), 학과별 교육(3.17)은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피교육자의 번역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ANOVA를 통하여 검정한 결과, 0.000의 유의도를 나타내어,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과 피교육자의 번역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간에는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25>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번역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	번역서비스 M(SD)	F값	Scheffe's test
도서관안내책자·리플렛 교육 a	3.00(1.41)	5.71	dbca/cae
그룹별 교육 b	3.83(0.98)		
학과별 교육 c	3.17(1.27)		
일대일 교육 d	4.00(1.12)		
온라인교육 e	2.13(1.06)		

*p=0.000

Ⅷ. 결론 및 제언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환경에서 대학도서관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학술정보 이용교육이 정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합리적인 학술정보 이용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상명대학교 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현재 제공되고 있는 학술정보 이용교육의 현황을 밝히고, 나아가 피교육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이들이 제공받은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라 학술정보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정하였다. 총 112부의 응답지를 SAS를 통하여 통계처리하고,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통하여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학술정보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 남녀간에는 차이가 없다.
- (2) 피교육자의 전공에 따라 학술정보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 부분적인 차이가 있다. 특히, 관련사이트 이용법, 학위논문 이용법, 원문복사서비스 이용법, e-book 이용법, 번역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 (3)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에 따른 피교육자들의 학술정보 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특히, 외국학술잡지시스템 이용법, 관련사이트 이용법, 학위논문 이용법, 전자자료 이용법, 원문복사서비스 이용법, 전자자료 외부이용법, e-book 이용법, 번역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 명백한 차이가 있다.
- (4)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 중에는 그룹별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며, 다음은 학과별 교육과 일대일 교육이다.
- (5)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 중에서 효과적이지 않은 교육방법은 온라인 교육이다. 온라인 교육은 10개의 인지도 변인 중에서 온라인목록검색(OPAC) 이용법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교육이 상대적으로 정보활용능력 수준이 낮은 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는 현실에 근거한 결과이다.
- (6) 학술정보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그 방법도 그룹별 교육을 보다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보다 합리적인 학술정보 이용교육을 위해서는 논문작성이 요구되는 학부 고학년 및 대학원생 중심의 그룹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

1. 본 규정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이하 본 학회지라 한다)에 수록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학회지에 수록될 논문의 투고자격은 본 학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다만, 비회원이라도 특별기고의 경우에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수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주제는 도서관·정보학 및 관련분야로 한정한다.
4. 투고편수는 단일 명의일 때는 1인당 1편으로 제한한다. 다만 주저자(책임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2편까지 투고할 수 있다.
5. 투고는 미공간(未公刊) 자료에 한하며, 석사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6. 원고의 분량은 도표 및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인쇄된 면수 20쪽(A4용지 기준으로 40자 33줄)을 기본량으로 하며, 최대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기본량을 초과할 때는 저자가 초과 면수에 대한 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7. 원고의 본문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8. 원고는 제목, 성명, 목차, 주제어(Key Word), 국문초록, 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순으로 작성한다. 원고의 목차 아래에는 간단한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첨부하되, 지시형 초록으로 작성한다.
9. 원고의 논제, 저자명, 소속기관명은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하여야 한다.
10. 원고를 제출할 때는 소정의 논문 게재료 및 심사료, 미납 회비, 미납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1. 원고는 워드프로세서(아래아 한글로)로 작성하여 플로피 디스켓 1장과 출력한 원고 3부를 제출한다.
12. 그림에 관한 번호·제목·설명문은 그림 하단에, 표에 대한 번호·제목·설명문은 표 상단에 명시한다.
13. 그림과 표의 번호는 <그림 1>, <표 1>, 또는 <Fig.1>, <Tab.1>과 같이 기입한다.
14. 단위와 고유명사는 원어로 쓰고 수량은 C.G.S. 단위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인용문헌 및 참고문헌의 기재는 다음의 예시를 따른다.

가) 인용문헌

1) 단행본

(1) 단독저서 또는 2~3인의 공저

金秉喆,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서울 : 乙酉文化社, 1975), p.125.

Mary D. Cater and Wallace J. Bonk, *Building Library Collections*, 3rd ed. (Metuchen : Scarecrow Press, 1969), pp.25-27.

(2) 4인 이상의 공저

김용철 등,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대구 : 태일사, 2002), pp.50-55.

R. Heinich et al., *Instructional Media and the New Technology for Learning*(New

York : Macmillian, 1996), pp.133-135.

(3) 역서

Peter Herson, *탐색분석*, 이성민 역(서울 : 박영사, 2001), pp.27-29.

2) 정기간행물

崔成眞, "綜合目錄과 圖書館相互貸出," *국회도서관보*, 제11권, 제6호(1974, 12), pp.17-19.

Francis J. Witty, "Early Indexing Techniques : A Study of Several Book Indexes of the 14th, 15th, and Early 16th Centuries," *The Library Quarterly*, Vol.35, No.3(July 1965), p.142.

3) 학위논문

정해성, DDC의 패킷구조에 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9), p.25.

4) 전자자료

Jezaan Hirons, Regina Reynolds, and Guenter Franzmeier, *Establishing a Benchmark to Determine When to Mark a New Serial Record*, 1998, [cited 2003.1.10].

CORC Home page, <<http://www.oclc.org/oclc/corc/>> [cited 2003. 1. 10]. 또는 <http://www.oclc.org/oclc/corc/> [cited 2003. 1. 10].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 <<http://www.korla.or.kr/>> [인용 2003. 1. 10]. 또는 <http://www.korla.or.kr/> [인용 2003. 1. 10].

5) 동일문헌의 재인용

한 문헌의 같은 페이지를 2회 혹은 그 이상 연속하여 인용하는 경우

(1) 오동근, DDC 연구(대구 : 태일사, 2001), p.34.

(2) 상계서.

(3) Mary D. Cater and Wallace J. Bonk, *Building Library Collections*, 3rd ed. (Metuchen : Scarecrow Press, 1969), p.25.

(4) *Ibid.*

만일 계속되는 인용문헌의 다른 페이지를 인용하는 경우

(5) *Ibid.*, p.45.

바로 이전 것이 아닌 그 이전에 인용된 문헌을 인용한 경우

(6) 오동근, 전계서, pp.45-47.

(7) Carter and Bonk, *op. cit.*, pp.56-59.

(8) 정해성, 전계논문, pp.23-24..

나) 참고문헌

1) 단행본

(1) 단독저서 또는 2~3인의 공저

権名六郎. 新圖書館概論. 東京 : 學藝圖書, 昭和 48(1973).

Cater, Mary D. and Wallace J. Bonk. *Building Library Collections*, 3rd ed. Metuchen : Scarecrow Press, 1969.

(2) 4인 이상의 공저

김용철 등.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 대구 : 태일사, 2002.

Heinich, R. et al., *Instructional Media and the New Technology for Learning*. New York : Macmillian, 1996.

(3) 역서

Peter Herson. 팀제분석. 이성민 역. 서울 : 박영사, 2001.

2) 정기간행물

(1) 崔成眞. “綜合目錄과 圖書館相互貸出.” 국회도서관보, 제11권, 제6호(1974, 12), pp.15-26.

(2) Bookstein, Abraham. “The Bibliometric Disributions.” *The Library Quarterly*, Vol.46, No.4(Oct. 1976), pp.416-423.

(3) Haw, Dowe. “Developing Library Collection.” *In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edited by T. A. Gook. 2nd ed. New York : McGraw-Hill, 2002. pp.25-42.

3) 학위논문

정해성. DDC의 패킷구조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9.

4) 전자자료

Hirons, Jean, Regina Reynolds, and Guenter Franzmeier. *Establishing a Benchmark to Determine When to Mark a New Serial Record*, 1998.

〈<http://lcweb.loc.org/acq/conser/keytitle.html>〉 [cited 2003. 1. 10].

CORC Home page. 〈<http://www.oclc.org/oclc/corc/>〉 [cited 2003. 1. 10].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 〈<http://www.korla.or.kr/>〉 [인용 2003. 1. 10].

<http://www.nanet.go.kr/dl/samplesearch.pdf>

16. 본 학회지의 투고 및 편집과 관련된 모든 문의와 연락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1978년 5월 19일 제 정

1980년 11월 29일 1차 개정

1993년 6월 19일 2차 개정

1999년 2월 11일 3차 개정

1999년 9월 11일 4차 개정

2000년 6월 23일 5차 개정

2003년 3월 7일 6차 개정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논문 심사 규정

1. 본 규정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학술위원과 편집위원, 이사, 그 밖의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편집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학회장이 위촉한다.
3. 투고논문은 1편당 2인 이상이 심사하며,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 내용은 외부에 일절 발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학회의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무수정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중에서 하나로 판정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 '수정후 게재'는 심사자가 지적인 사항에 대해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투고자가 수정 후 다시 제출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쳐 재심사 없이 게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정후 게재', 혹은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할 수 있다.
 - (1) 논문의 주제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이 부족할 때
 - (2) 논문의 내용에서 연구방법의 적절성, 논리전개의 합리성, 문장표현의 명료성, 수록데이터의 정확성, 내용의 완성도가 적합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인용문헌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
 - (3) 논문의 형식에서 체제, 구성, 분량, 양식 등이 적합하지 않을 때
 - (4) 인용문헌 및 참고문헌의 작성기준이 본 학회지의 투고규정(15조)에 위배될 때
 - (5)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7. 심사위원은 원고가 학술논문으로서의 기본요건(주제, 내용, 형식 등)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8. 심사위원 중 1명이 '무수정게재'나 '수정후 게재', 다른 1명이 '수정후 재심'이나 '게재불가'로 판정 하였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제3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9.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한 후 심사의견서를 원고와 함께 본 학회에 회송하여야 한다. 회송기간은 심사를 위촉받은 날을 기준으로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7일 이내로 한다.
10.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고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 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심사의뢰를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1. 논문의 심사결과는 심사가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이 때 '수정후 게재'나 '재심', '게재불가'로 평가한 경우에는 심사의견서의 사본을 동봉하여야 한다.
12.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논리적 근거나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의의 수용 또는 기각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13. 수정하도록 요구받은 투고자가 1주일 내 수정된 논문을 본 학회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14. 본 학회지에 투고된 모든 논문의 심사 및 수정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그 최종 게재여부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15. 이 규정은 2003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